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4년
2025년 5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록경(황보 상민)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9년 제 306 호

불기 2569년 종령 봉축 법어

온 우주는 한 생명이고 한 몸 우리는 불성 가진 절대평등자



종령 지성 대종사

오늘은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싸여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투신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망과 탐욕에 찌든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드리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열반에 드신 지 이천오백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여 정당과 이익단체 등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국가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

신 참뜻은 만 중생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절대평등자임을 선언하신 데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 모두는 삼라만상 두두물물 비로화장세계(森羅萬象 頭頭物物 毘盧華藏世界), 온 우주는 한 생명이고 한 몸입니다. 이 진리의 요체로서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부처님과 나와 나는 하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절대평등자로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나’가 존재하며, ‘나’라는 개개인이 모여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울타리를 이룹니다. 국가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은 국가를 생각하여 바른 지혜로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우리 불자님들과 국민이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지중 종령 지성 합창

가슴마다 총지의 등불로 무명의 도심을 밝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4월 26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서는 연등행렬이 진행됐다. 동국대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와 어울림마당에 참여한 종단의 서울경인교구 사부대중은 비로자나부처님과 준제관음의 장엄등을 따라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서원했다.

관련 기사/화보=6·7면

불기 2569년 통리원장 봉축사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부처님 따르는 길”



통리원장 록경 정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봉축합니다.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가정과 도량마다 두루 평안하시고 화평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갈등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결정이 있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피해와 함께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직도 고통의 나날

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화합을 지향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주변의 상심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보시, 한 마디의 위로,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곧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울러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자성과 자리이타의 등불을 하나씩 올립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부처를 일

깨우고, 수행과 발원이 사회에 희망이 되어 이 세상이 자비가 넘치는 평화로운 불국정토가 되도록 서원하고 정진합니다.

오늘은 지혜와 행복의 세상을 열어주시는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부처의 마음으로 살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록경 합창

종/조/법/어

인간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금수(禽獸)는 참회하는 눈물이 없다.

지 면 안 내

5면 부처님오신날 종단 봉축사
6,7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축화보
10면 남해 정사의 인도성지순례기⑥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불기 2569년

봉축법요식

총기 54년 5월 5일 오전 10시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불교총지중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꽃비 내리고 연꽃 솟아오르네!

月隱中峰舉扇喻(월은중봉거선유)
風息太虛動樹訓(풍식태허동수훈)

달이 중봉에 숨으니, 부채를 들어 비유하고
바람이 큰 하늘에 쉬에, 나무를 흔들어 알리도다.

부처님께서 룸비니에 탄생하실 때 두루 일곱 걸음을 걸으시니 걸음마다 연꽃이 솟아올랐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며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라 하셨도다. 최초 설법인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며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살하시고 본래 부처로서의 삶을 권장하셨도다.

부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면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행하는 일마다 무진법문이 되도다.

새소리 바람소리는 최고의 음악이 되고 흘러가는 구름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며 들꽃 송이송이도 무진법문을 들려주는 장엄한 법석이 되도다.

어떠한 허상에도 속지 않고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은 원력보살이 되겠다는 발원을 하는 불자야말로 부처님이 칭찬하시고 제전과 호법선신이 찬탄하는 참 불자의 모습이요, 일찍이 룸비니에서 꽃비 내리고 연꽃이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셨도다.

未離兜率 已降王宮 (미리도솔 이강왕궁)
未出母胎 度人已畢 (미출모태 도인이필)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내려오셨고 / 태속에서 나오시기 전에 중생 제도를 마쳤도다.



대한불교진각종 종인 덕일 정사

안존열락 화평 이루길 일심으로 서원

일곱 걸음 걸으시어 한 손으로 하늘을, 또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시며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개고(三界皆苦) 아당안지(我當安之)” 지혜와 자비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셨네. 집집마다 거리마다 마음마다 섬김의 등, 소통의 등, 화합의 등을 밝히세. 무명으로 인한 미혹, 집착 가득한 사바세계에 상서로운 기운 가득하도록 무진으로 서원하세.

오늘은 초파일,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오신날 두 손 모아 귀명하며 찬탄합니다. 법계의 실상은 본래 일어평등하니 자타가 상보로 섬기고 상호공양으로 소통하면 화합의 밀엄정도가 지금 여기 현현하건만 가정, 사회, 정치, 종교마저 분별의 편향으로 깊어가니 무명의 환몽(幻夢) 공상(空想)을 깊이 참회합시다.

심인정법 굳게 세워 진언염송의 묘법으로 성품 깨쳐 심전 정화하면 세사의 어지러운 환란이 다시 감동의 동력으로 승화하고 자타 없이 자성 밝아 교민(教民) 화속(化俗) 만다라세상 현현합니다.

윤회 인과법칙을 밝게 볼 수 있는 해안이 곧 자등명(自燈明)이요, 자신의 삶을 밝혀 감을 범등명(法燈明)이라 합니다.

내딛는 걸음걸음 심중에 새겨서 초목군생이 제각각 향기를 품어내고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안존열락(安存悅樂) 화평(和平) 이루길, 삼세(三世) 불은(佛恩)과 사대은혜에 보답하며 일심으로 서원하여 부처님 오심을 다 같이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흔들리는 풀 끝마다 빛나는 진리를 보라

일색일향(一色一香)이 무비중도(無非中道)라. 저 한송이 꽃, 흔들리는 풀 끝마다 각각 빛나는 진리를 보아라.

세상 만물 그대로가 여여한 진리이니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문,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로 가는 문, 늘 열려있으리라.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국민안과 국민화합을 일심으로 발원하며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우리 곁으로 오신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믿음의 밭 가꾸는 자리에서 당신은 부처

佛誕祥光照世間(불탄상광조세간)
萬靈尊貴起慈心(만령존귀기자심)
見性方知眞信種(견성방지진신종)
信田耕處汝爲佛(신전경처여위불)

부처님 탄생의 상서로운 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모든 존재의 존귀함이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자기 성품을 본 뒤에야 참된 믿음의 씨앗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밭을 가꾸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부처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윤경 스님

자비롭고 지혜로운 ‘나’를 찾읍시다

심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 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세상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봉축의 날, 우리 모두 다시금 마음을 거두어 들여 참된 나, 자비로운 나, 지혜로운 나를 찾는 일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불자의 길이라 하겠습니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중생이 불법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길 발원합니다.

봉 축

부처님오신날

서울경인교구 신정희

지회장 | 노진숙

각 사원 신정희 회장 일동

대구경북교구 신정희

지회장 | 윤복자

각 사원 신정희 회장 일동

충청전라교구 신정희

지회장 | 민순분

각 사원 신정희 회장 일동

부산경남교구 신정희

지회장 | 류길자

각 사원 신정희 회장 일동

마니 합창단

단 장 | 김 은 미

만다라 합창단

단 장 | 안 미 옥

부림 합창단

단 장 | 조 정 애

총기 54년 제104회 춘계 강공회 개최

제14대 중앙종의회 의장에 인선 정사



총기 54년 제104회 춘계 강공회가 4월 16일 오전 종조 참배대례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17일까지 본산 총지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공회에는 종령 지성 예하를 비롯한 전국 스승 50여 명이 참석해 수행을 점검하고, 주요 회의 및 종령 강훈과 스승교육 등이 실시됐다.

제14대 중앙종의회 종의원



의장
인선 정사



부회장
법상 정사



법상인 전수



우인 정사



승원 정사



행원심 전수



서령 정사



묘흥 전수



도우 정사



서강 정사



혜광 정사



남해 정사



일진 정사

강공회에 전날인 15일에는 제 211회 원의회 및 제141회 재단이사회 합동회의가 오전 11시부터 통리원 부장실에서 열렸다. 총기 53년 결산심을 마쳤으며, 원안대로 결의됐다. 제172회 정기 중앙종의회는 오후 2시부터 개최되어 총기 53년 결산 심의 후 의결하였다.

또 제155회 승단총회를 열고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13대 중앙종의회를 이어 제14대를 이끌어갈 중앙종의회를 구성, 법상인 전수를 비롯해 법상인, 인선, 우인, 승원 정사, 행원심 전수, 서령 정사, 묘흥 전수, 도우, 법상, 서강, 혜광, 남해, 일진 정사 총 13명의 종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종의회 의원들은 곧바로 제173회 임시 종의회를 열어 제14대 종의회 의장에 인선 정사와 부의장 법상 정사를 선출했다. 또 신임 사감위원에 승원 정사와 혜광 정사를, 유지재단 이사에 법선, 도우 정사를 선임했다.

이번 강공회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불공은 오전 10시부터 자심관 전수(수계사 주교)의 집공으로 봉행됐으며, 종조법설집 제4절 마음을 주제로 설법 시간도 가졌다. 또 회향불공에서는 보명심(운천사 교화스승) 전수의 집공과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설법으로 마무리됐다.

조고각하(照顧脚下)

지혜의 눈

불교는 현재를 강조하는 종교 배제 아닌 공생의 가르침 필요

내가 불교를 처음 만난 것은 1970년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불교학생회 회장으로 뽑힌 친구에게 이끌려 법회에 강제로 한 학기 동안 참석하였는데, 아마도 당시 대학에서 나온 불교 관련 서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한동안 발길이 뜸해졌는데 그해 말 겨울 수련대회에 다시 강제로 끌려갔다. 수련대회는 12월 25일경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북도 무주의 적상산 안국사로 갔다. 당시 안국사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고, 절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참선, 1080배, 그리고 직접 나무를 쪼개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때는 매우 고된 일정이었다. 하지만 이 수련대회에서 무언가 내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전개되던 시기였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 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기독교는 19세기 말에 선진 문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고, 산업사회 경험을 토대로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무섭게 교세를 확장하였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불교의 낡은 이미지와 전근대적인 모습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불교 교리가 주는 매력에 이끌려 끈을 놓지는 않았다.

한편으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교로 변화하면서 매우 극단적인 주장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한동안 '불교가 한국 사회의 지배적 종교, 나아가 국교의 지위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유일신을 섬기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가진 폐단에 물든 탐욕'이라는 자각이 들면서 깊이 반성하였다. 무엇보다 휴전선 너머 북쪽에 또 다른 유일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분단 상황을 넘어서

기 위해서는 배제가 아니라 공생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나는 불교의 가능성을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보았다. 2002년 월드컵 이후 템플스테이를 통해 외국인에게 한국 불교의 속살을 보여주었다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내국인에게 불교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 박람회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특히 관람객 중 20~30대 젊은 층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일까 검색하면서 현장을 찾은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불교의 역동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는 현재를 강조하는 종교이다. 중심 교리인 연기(緣起)만 보아도 교리 자체가 현재를 지향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주어진 교리를 묵수(墨守)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세계를 끊임없이 인연생기(因緣生起) 하는 것으로 보는 불교는 항상 현재를 강조한다. 현재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 관점, 즉 비결정론적 관점은 불교만의 특징이다.

송대(宋代)의 오조 법연(五祖 法演) 선사와 그 제자들의 일화에서 비롯한 선문답 중 하나가 '조고각하(照顧脚下)'이다. '발밑을 비춰 보라'는 뜻으로, 발밑은 바로 현재를 의미한다. 불교를 낡고 고리타분한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은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해당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불교가 오히려 현재적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다. 불교는 세상을 지배하기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의지처가 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훈
지덕체를 겸비한
의지도자가
되자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이 사 장 : 록경 정사
교 장 : 송인근
교 감 : 김진화
지도법사 : 남해 정사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일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참
으로 평안하고 행복하신지요?

따스한 봄기운과 생명의 숨결이 온
누리에 가득한 오늘,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께 깊이 감사 올리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평
화보다는 불안이, 화합보다는 대립
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욱 깊어지
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겨야 하겠
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
我獨尊)”

부처님의 탄생과 함께 울려 퍼진
이 외침은 오만과 독선이 아닌, 모든
생명이 존귀함을 깨우치는 말씀입니
다.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
야 할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는 배웁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께서 가르
치신 평화롭고 조화로운 길로 한 걸
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대립과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지혜

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함
께 걸어가야 할 부처님의 길입니다.
참된 평화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선명상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마
음을 살피고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수행의 힘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
고, 기쁨을 나누며, 공존과 화합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게 지혜의 길입니다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부처님의 진실법을 세워 정진합시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생명
은 고유한 존엄을 가지며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
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
면서 스스로 존엄하고 존귀한 삶을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들의 마음을 자비로 채워서 세상에
평안이 깃들게 하고 이웃과 사회, 국
가와 인류가 다 함께 행복하기를 서
원합니다.

사생(四生)의 자부(慈父)이신 석가
모니 부처님께서는 2천5백년 전 못
생명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육바라밀
과 팔정도 등의 다양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지금, 여기서 바

로 멈추고, 내려놓고, 비우는 데 있습
니다. 고통을 부르는 어리석음을 걷
어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탐냄을 멈
추고, 다툼을 일으키는 화냄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지혜를 밝히고, 베풀고, 화합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부
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열 듯이 부처님오신날의 진
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족과 이
웃을 제도(濟度)하고 주변을 정화해
국가와 사회가 더욱 평안하기를 서
원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참회하면서 부처
님의 진실법을 세워 정진합니다. 지
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지극한 마
음으로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상

을 깨우치시고 만 중생을 지혜와 자비
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
생의 무명이 깊고 깊어 청정한 본마음
을 잃어버린 채 욕심내고, 성내고, 화
를 내며 무명의 업장을 키워가니 중생
계는 어느 하루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

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
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
차대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과
같이 우리 모두 청정한 본마음을 회복
하고 부처님 오심을 예배 찬탄하며 연
등에 불을 밝히고 각자의 마음을 밝히

는 수행정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룸비니동산에 울려 퍼진 그 법향기
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대한민국의 국
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부처님
께서 열어 보으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각자 마음을 밝히는 수행에 정진해야

자비를 베풀고 지혜 나누어 공존공영해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
아 국민과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불
은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
님께서 고통 받는 우리를 제도하
시고자 오늘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
니다. 혼란한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혀 모든 중생을 섬수하시
고자 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비
를 베풀고 지혜를 나누어 서로를 위
하고 돕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가장 잘 만드는 일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곳에는 갈등과 시
비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
할 때 정답게 어울려 화목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지혜로움이 있는 곳

에서는 나만 생각하고 고집하는 이
기심과 욕심, 아상, 아집이 없습니
다. 성냄과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너
와 내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
공영의 세상이 널리 펼쳐집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불법홍포의 사
명을 다하여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
누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자비
행에 동참할 것이며, 다가오는 대통

령 선거에서도 올바른 민심과 공동
체 정신이 존중되기를 서원하며 국
민화합과 조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
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의 등
불을 밝히어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
은 화합으로, 반목은 신뢰로, 분쟁은
화쟁으로 돌리어 다 같이 자비와 평
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아름다운 인연의 불빛 이어가길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본래 공(空)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공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고통과 번뇌는 결
국 집착에서 비롯되며, 이를 내려놓
을 때 진정한 지혜와 자유를 얻게 됩
니다.

낡고 해진 옷을 버려야 새로운 멋
진 옷이 생기듯이, 마음 또한 욕심과
집착을 비울 때 평화와 여유가 찾아
옵니다.

이렇게 비워진 마음의 공간에 우리
는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채워나가
야 합니다. 이 육바라밀이 바로 비워
진 공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참된 실
전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지혜의 등불을 밝
히는 날입니다. 초파일에 불을 밝히
는 것은 마음속 어두운 집착과 욕심
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지혜와 자
비로 채우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밝힌 연등처럼 모두의 마음이
밝아지고, 서로가 서로의 인연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인연의 불빛을 이
여가기를 바랍니다.

불기2569(2025)년·진기79년 부처님오신날

“공감으로 이해하여 소통하는 세상으로”



총 인 덕 일
통 리 원 장 능 원
종 의 회 의 장 증 혜
현 정 원 장 대 원
교 육 원 장 정 법
총 금 강 회 장 정 명



중앙총의회 의장 인선 정사

현세정화·구경성불 큰 서원 되새겨야

쟁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 불황도 여전합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었으니, 육도윤회의 수레바퀴는 한 순간도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산불사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위해 깊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교도 여러분!

오늘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손에 손에 등불을 밝혀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변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자성이 청정한면 중생이 곧 부처이며, 법계에는 극락과 중생계가 따로

없음을 깨달아 현세정화 구경성불의 큰 서원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연등 하나 밝히는 공덕으로 인류가 평온하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남으로써 모든 분야의 양극화의 벽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중생심에 등불을 밝혀 부처의 눈으로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보살이요, 곁에 있는 사람은 부처의 현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며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모든 분에게 따뜻하고 밝은 위로를 보냅니다. 옴마니반메흠.

부처님오신날 인선 합장



서울경인교구장 덕광 정사

자비와 지혜광명의 등불이

소외된 곳 없이 비추길

땅에 오셨으며,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열반에 드실 때까지 설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수행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집착

하면 불안과 걱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이 순간인 현재의 소중함을 알면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지혜의 등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지혜로운 삶, 참된 행복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흠.

부처님오신날 덕광 합장



충청전라교구장 승원 정사

본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아진다

부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실재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고 고통받는 실체입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건지어진 법, 즉 무아적 존재입니다. 모든 마음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됩니다. 탐진치 삼독심은 나쁜 마음입니다. 버려야 할 대상이지 좋아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차리는 마음과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 지혜로운 마음과 노력하는 마음,

기쁨과 신심을 키워야 합니다. 불법이 체가 된다는 것은 늘 좋은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마음이 착해지면 현세가 곧 극락이고, 마음이 악해지면 현세가 곧 지옥입니다. 세상의 평안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본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아지는 법입니다. 마음의 지혜와 자비가 세상의 평화와 안정의 출발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법신 불의 가지력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승원 합장



사감원장·부산경남교구장 범일 정사

평안과 자비 실천의 세상이 되기를...

부처님과 일치시키는 밀교의 핵심 수행입니다. 몸[身]은 이웃을 돕는 실천으로, 말[語]은 진언의 염송으로, 뜻[意]은 자비와 깨달음을 향한 발원으로 모아집니다. 삼밀이 조화될 때, 우리의 삶은 만다라가 되어, 그 자체가 법계로 전환됩니다.

그 가운데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흠’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가장 순수하게 담은 진언입니다. 이 짧은 여섯 글자 안에는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연민과 그들을 해탈로 인도하려는 대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염송을 통해 우리 마음의 탁한 기운은 서서히 맑아지고, 언어는 따뜻해지며, 행동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이웃, 내가 내뿜는 말, 내가 바라보는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법신 비로자나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진언을 염하고, 자비를 실천할 때, 그 자리 자체가 곧 도량이 되고, 그 순간이 곧 불국이 됩니다. 부처님오신날 진언의 울림이 우리 삶을 적시고, 자비의 실천이 이웃에게 번져 모든 생명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되기를...

성도합시다.

총지종의 삼밀행은 몸과 말과 뜻을 본존

부처님오신날 범일 합장



대구경북교구장 범상 정사

지혜와 자비로 온 세상 가득 채우자

다라요, 우리의 말은 진언이며, 우리의 마음은 지혜의 빛입니다. 이 삼밀의 조화를 통해, 우리는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고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연등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무명(無明)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며,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빛입니다.

이 빛을 따라,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된 부처님의 씨앗을 깨우고, 찬란하게 꽃피워, 온 세상을 지혜와 자비의 향기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밝힌 이 연등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깨달음의 밝은 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여, 모든 불자와 교도 가정 에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아끼 부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시에 우리 안의 불성을 깨닫고 현현시키겠다는 서원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만

부처님오신날 범상 합장

총기 54년 춘계 강공회
회사 고맙습니다

관성사 인정회 / 덕화사 인정회
밀인사 인정회 / 밀행사 인정회
운천사 인정회 / 자석사 인정회
정각사 인정회

부산경남지회 류길자 지회장
대구경북지회 윤복자 지회장
관성사 김병석 / 정각사 이정자
총지사 보심관, 안금순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평화기원 메시지>

일즉일체(一即一切), 일체즉일(一切即一)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입니다. 한 몸의 귀와 눈이 서로 싸우지 않고 팔과 다리가 서로 다투지 않듯이 나는 눈과 몸이 되고, 너는 귀와 다리가 되니 시비(是非) 분별(分別) 없는 서로가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화타지옥의 세계입니다. 작은 차이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서로 다름조차 수용하지 않으며, 대립과 극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는 평화 통일을 맞이한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 통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규와 갈등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청청 뭍은, 이념과 사상의 갈등으로 단절가른 생명의 외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비와 평안의 참 뜻을 되새기며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공동체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바로 알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평안과 자비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하는 세상을 열어갑시다.

평안과 자비,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발현하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 큰 바람이 되어, 마침내 함께하는 세상, 평화로운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차게 정진합시다.



1. 스승님들을 선두로 총지 교도의 행렬이 도심을 가르고 있다. 2.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연등법회에 동참중인 총지종의 각자님과 보살님들 3. 금강역사, 육합상, 관세음보살 육자진언, 비로자나불, 준제관음상 장엄등 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기관 소속원도 연등회와 함께 5. 합창단 뒤를 이은 풍물단과 함께 신나는 연등행렬 6. '옴'자와 '육합상'이 새겨진 등을 높이 세우며 '우리 총지종'

‘옴마니반메흠’으로 장엄



평화와 상생, 화합, 행복을 염원하는 연등(燃燈) 물결이 서울과 부산의 도심 거리를 환하게 밝혔다.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의 하이라이트 연등행렬을 즐기기 위해 시내를 찾은 수많은 시민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만개했다.

서울경인교구(교구장:덕광정사)와 종단 산하 기관 소속원들은 4월 26일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으로 마련된 연등법회에 참석 후 연등행렬에 올랐다. 법회에서 통리원장 목걸 정사는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함께하는 세상, 평화로운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차게 정진하자.’고 설파했다.

동참한 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환희 밝힌 비로자나부처님과 준제관음상, 육자대명왕진언, 육합상 등 종단의 깃발을 앞세운 장엄물을 따라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에 나서며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주황색 바탕에 보라색 깃을 두른 전통 교도 법의를 함께 수의하고 행렬에 나서며 신심을 하나로 모았다.

부산경남교구(교구장:범일 정사)와 대구경북교구(교구장:범상 정사)도 부산 연등행렬에 참가했다.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가 같은 날인 4월 2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산 연등회 본행사’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부산경남과 대구경북교구 사부대중은 삼밀의 사상을 담은 법구 ‘금강저’를 장엄등으로 밝히며 무명의 어둠을 가르는 깨달음을 서원했다. 연등행렬은 풍물패를 앞세워 도시를 밝히며,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시민과 불자들과 함께 환호하며 환희심을 더했다. 부산시민공원을 출발해 하마정교차로, 양정교차로를 거쳐 송상현광장에서 회향했다.

이에 앞서 부산연등회가 연계행사로 송상현 광장에 마련한 전통문화 체험한마당에는 정각사 다도반 ‘자재차인회’가 다도체험 부스를 열고 교화와 봉축의 열기를 더했다.

편집=박재원 기자

1. 어둠을 가르는 금강저의 장엄등으로 지혜를 밝히다. 2. 스승님들의 힘찬 발걸음 따라 교도들도 성큼 한걸음 3. 연등 행렬에 앞선 ‘불기 2569년 부산 연등회 본행사’ 4. 하나씩 켜지는 행렬들 앞에서 함께 밝아지는 마음들 5.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행렬이 등불과 어울려 봉축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6. 끊임 없이 이어지는 총지종 행렬들의 향연 7. 총지의 행렬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한복의 고운 자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불타인 내가 모두 건져주리라

부처님의 탄생일과 탄생 연도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남방 불교권과 북방 불교권의 날짜가 다르다.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등 북방 불교권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의 탄생일로 봉축하고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등 남방 불교권에서는 베사카 달의 제8일 혹은 제15일을 부처님의 탄생일로 여긴다. 베사카 달은 대략 양력 5월에 해당하며, 그 달 가운데의 8일이나 15일에 베사카 제를 지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화창한 봄날, 꽃이 만발할 때 태어나신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기록도 명확한 것이 남아 있지 않지만, 남방불교 쪽에서는 스리랑카의 역사서인 <대사(大史)>나 아쇼카왕 석주(石柱)를 참고로 탄생 연도를 추측한다. 대승불교권인 북방불교에서는 ‘중성점기설(衆聖點記說)’이라고 하여,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 매년 점 하나씩을 찍어 기록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교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한 연도를 대략 기원전 566년 또는 560년, 466년, 46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기원전 566년 설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설에 따라 계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80년을 사셨으니까 입적하신 연도는 기원전 486년이 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연도를 계산할 때 ‘불멸(佛滅) 몇 년’ 하는 식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신 연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서기를 예수 탄생의 연도로 기준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지금 우리가 쓰는 불기(佛紀) 몇 년 하는 것도 부처님의 탄생 연도가 아니라 부처님의 입멸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올해는 불기 2569년인데 이것은 1956년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서 입적하신 연대를 통일해서 1956년을 불기 2500년으로 삼고, 세계 공통의 불기로 쓰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왜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부처님 탄신 연도를 계산하면 올해는 불기 2569년이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는 2649년이 되는 셈이다.

부처님의 탄생 설화와 탄생계

불교의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더욱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신화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한시할 것이 아니다. 신화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Gautama Siddhārtha)이다. 성(姓)인 ‘고타마’는 ‘가장 훌륭한 소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는 소를 신성시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이름으로서 석가족의 별칭으로 추측된다. 경전에 보면 ‘구담(瞿曇)이시여’ 하는 구절이 자주 나오는데, ‘구담’은 고타마를 한자로 음사한 것이다. ‘시타르타’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 혹은 ‘일체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친은 석가(釋迦;

“

탄생계 외친 뒤
사방으로 일곱 걸음

육도윤회 괴로움 벗어나

해탈·열반 세계에
들어감을 상징

”

Sakya)족으로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 부친의 이름은 숲도다나[Suddhodana; 정반왕(淨飯王)]이며, 모친은 이웃 코리족 출신의 마야(摩耶;Māyā)라는 여인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삼촌이 백반왕(白飯王), 감로반왕(甘露飯王)인 것을 보면 석가족은 유목민 계통이 아니라 쌀농사를 짓던 농경민족이 틀림없었다고 생각된다.

불전에 의하면 정반왕 부부는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태안어드는 꿈을 꾸고서 임신했다고 한다. 경전에서는 마야 부인이 출산을 위해 친정에 가던 중 룸비니(Lumbini) 동산에서 부처님을 출산했다고 전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는 현재의 네팔 카트만두 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카필라바스투 근교에 있다. 룸비니는 마야 부인의 친정아버지가 어머니에게만 들어준 동산이다. ‘룸비니’라는 이름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친정으로 가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던 마야 부인이 아름답게 핀 무우수 나무에 오른 손을 뻗는 순간 태자가 오른쪽 옆구리에서 탄생하셨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태어나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부처님의 전기를 쓴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이 사성계급 중에서 왕족에 속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인도의 신화에 의하면 바라문은 만유의 근원인 브라만(brahman)을 신격화한 범천



(梵天)의 머리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저드랑이나 옆구리에서 태어나며, 평민은 무릎에서, 하층민인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옆구리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부처님이 왕족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며 한 손으로는 하늘을,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오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吾當安之: 온 우주에 내가 가장 존귀하니 내가 마땅히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멸하고 편안히 하리라)’라는 그 유명한 탄생계(誕生偈)를 외쳤다고 한다. 어떤 기록에서는 단지 사방을 둘러보다가 일곱 걸음을 걷고 탄생계를 외쳤다고도 한다.

탄생계는 기록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천상 세계나 인간 세계를 통틀어 내가 가장 존귀하며,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편안히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빨리 경전에는 “나는 세상의 최상(最上)인 자다. 나는 세상의 최존(最尊)인 자다. 나는 세상의 최고(最高)인 자다. 이것이 마지막 삶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도 되어 있다.

이 탄생계를 ‘부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모두 존귀하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위대한 인간 선언이고 생명 선언이다’라고 확대해석하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저 ‘진리를 깨쳐서 윤회의 속박을 해탈하고, 무명에 가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불타인 내가 건져주리라’는 부처님 탄생의 의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

탄생계를 외친 대목도 다분히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묘사이다. 방금 태어난 갓난아이가 일곱 걸음을 걸어 이러한 말을 외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불전(佛傳) 작가들이 부처님의 위대한 탄생을 묘사하기 위하여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도 윤회, 즉, 여섯 종류의 윤회의 세계를 초월하리란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일곱 발짝이라는 것은 육도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탄생 의미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쳤다는 탄생계 안에는 부처님의 탄생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로지 우리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크나큰 자비로써 우리 중생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괴로움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의 운명을 조작하거나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스스로 화복을 결정한다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인간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교가 태어났다 사라졌지만, 불교와 같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종교는 없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나 지금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테러를 보면 불교가 얼마나 평화를 염원하고 실천하는 종교인지 알 것이다. 불교의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제 불교는 아시아를 벗어나 전 세계 지성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떤 역사학자는 “불교가 미래의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종교”라고까지 말했다.

과거 십자군 전쟁, 기독교의 신교와 구교의 갈등에서 빚어진 살육, 이슬람의 아시아 정복 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파괴 등은 차라리 종교가 없었더라면 인간들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리란 생각이 들게 한다. 다른 종교가 신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이와 같은 잔인무도한 행태를 볼 때 모든 생명의 조화와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의 우수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불교, 인간불교를 실천하여,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거듭 태어나자. 정성을 모아 등불을 밝히면서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고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밝혀보자.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화령 정사의
담마빠다 돌아보기

적이 적에게 주는 해보다
원수가 원수에게 주는 해보다
나쁘게 먹은 마음이
자신에게 주는 해는
이보다 더욱 크게 스스로를 해친다

누구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상보다도 우선은 자신이 더 괴롭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해야 합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원인을 먼저 나에게서 살펴보는 것이 좋

습니다.
상대편의 허물은 사실 나의 허물의 반영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미워하는 대상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짝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꺾을 때 마음도 사라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	처	님	오	신	날		파	란	색
끄			아				면		채
러		보	시			견			미
움	막		스	물	스	물		어	
	무			꼬		생		머	
석	가	탐				심	마	니	
	내		어		주	음			
오		유	린		객		씨	름	판
징			이	심	전	심			박
어	버	이	날		도		나	들	이



<황제내경(黃帝內經)> ‘소문(素問)’ 상고천진론(上古天真論) 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상고진인(上古眞人) 제설천지(提挈天地) 파악음양(把握陰陽) 호흡정기(呼吸精氣) 독립수신(獨立守神) 기육약일(肌肉若一) 고능수폐천지(故能壽蔽天地)”

옛날 진인들이 건강을 위해 행한 양생법, 즉 먹을 것을 가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게 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고의 진인은 천지의 규율을 이해하고 음양의 이치를 장악하여, 정기를 호흡하고 정신을 지키어 홀로 서고, 그 기육이 한결같으므로 수명이 능히 천지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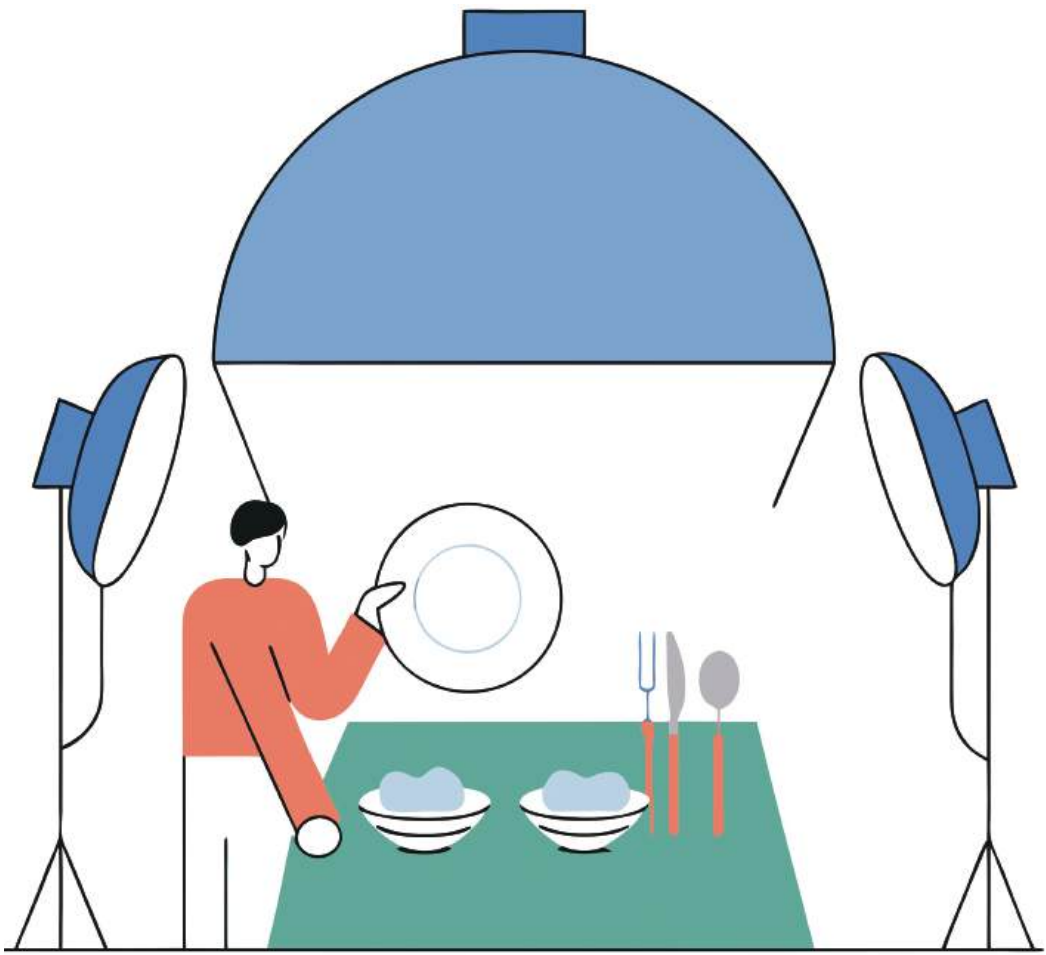
이 양생법 중에서 특이한 것으로 ‘독립수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잘 다스리고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려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정신 건강에 관하여 설파한 것입니다.

상고천진론에 나오는 구절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적인 독립을 통해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수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온과 자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립수신’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쁜 업무와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며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과중한 업무와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자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명상을 하기로 결심하고, 업무가 많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날에도 그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

독립수신(獨立守神)



이미지=©MOMO Studio@Unsplash

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고, 외부의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해 영향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독립수신’의 정신을 실천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립수신’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업무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하루를 보내고 나면, 잠시라도 자연 속에서 걷거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기를 쓰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끝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정신적인 독립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외부의 변화나 어려움에 대해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상고진인의 양생법에서 강조하는 독립수신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신적인 평온과 자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는 현대인에게 이 양생법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더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천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와 숲 한의원 정은철 원장



하루 한 끼 찬밥을 먹었던 한식날을 다시 생각하며

계절의 빛깔이 이제 완전한 청록이다. 노란 새싹에서 본격적으로 연푸른 청록 빛 윤기를 더해가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란 가히 신기할 따름이다. 그토록 차가운 냉기가 대지를 억누르더니 계절의 변화는 누구도 발목을 잡을 수 없나 보다.

임사귀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 모든 생명체에 즐거움을 전한다. 맑은 공기는 상쾌함을 더해주어 호흡마저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만물에 생동감을 되찾아주는 요즘이다.

강남 갔던 제비는 다시 돌아와 저마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하양, 노랑 속옷을 예쁘게 걸쳐 입고 연미 신사가 되어 다시 찾은 고향 집 빨랫줄에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목청껏 노래 부른다.

“삼월은 늦봄이라 청명 곡우 절기로 다./ 봄날이 따뜻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온갖 꽃 활짝 피고 새소리 각색이라/ 대청 앞의 쟁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꽃사이 범나비는 분분히 날아도니/ 미물도 때를 만나 즐기니 보기 좋다./ 한식날 성묘하니 백양나무 새잎 난다./ 조상 생각 슬픈 느낌 술 과일로 펴오리라.” - <농가월령가> ‘3월령’.

우리 고유의 명절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명절이 한식(寒食)이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며, 대개 양력 4월 5·6일경으로, 청명이나 그다음 날에 해당한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속담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식이 들 때쯤이면 봄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한창 씨 뿌릴 때라 놀이보다는 성묘(省墓)하면서 하루를 차분히 보낸다.

한식날은 예로부터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다. 우리 조상들은 신라 때부터 이날을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성묘를 드리는 중요한 날로 삼았다. 임금도 관리들이 성묘하도록 이날은 휴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죄수에게도 형(刑)을 집행하지 않도록 금지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한식을 더욱 중하게 여겨 오늘날까지 한식날 성묘하는 관습이

남아 있다. 이날은 밥을 새로 해 먹지 않았는데, 이 시기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한 때라, 이럴 때 성묘하러 가서 불을 잘못 쓰면 산불이 날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한식날과 관련하여 안타깝고 슬픈 전설이 전하고 있다.

“중국 춘추시대 문공이 왕자 시절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어려운 신세가 됐을 때, 개자추(介子推)라는 신하가 충성을 다해 그를 모셨다. 그러나 문공은 왕위에 오르자 지난날 개자추의 충성을 잊었고, 이에 실망한 개자추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를 알게 된 문공은 나중에야 개자추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개자추가 말을 듣지 않자, 그를 끌어낼 목적으로 산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개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고 말았다. 문공은 탄식하면서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날에는 불을 때지 않고 찬밥을 먹도록 하였다.”

찬밥을 먹는 날, 즉 한식(寒食)이 생긴 유래다. 이 외에도 옛날에는 임금의 청명의 날에 새 불을 일으켜 못 신하와 고을 수령에게 나누어주었고, 수령은 한식날에 이 불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새 불을 받기 위해 한식날에 묵은 불을 끄고 하루 동안 불 없이 지내며 찬 음식[寒食]을 먹었다고 한다. 하나의 불로 온 나라의 군신(君臣)과 백성이 일체감을 느끼게 하려는 임금의 뜻이 담긴 이야기로, 이는 바로 선인들의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온 나라가 산불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작은 불씨 하나도 가버리면 여기저기 불이 번질까 걱정이다. 특히, 이번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국민에게 세심한 배려(配慮)와 관심이 요구된다. 함께하면 세상은 두 배나 아름다워진다는 진리를 명심하면서 말이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강남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원장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

성남시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원장

강남구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원장

강서구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원장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원장

성남시
양지동 제1복지회관
서영주 관장

강남구
세곡다함께기움센터
김경희 센터장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봉
부
처
님
오
신
날
축



총지로 여는 삶 ㉞

부잣집의 며느리 선발

옛날 어느 고을 부잣집에서 새며느리를 얻는데, 시험을 봐서 뽑기로 했습니다. 시험문제는 한 상을 잘 차려주고 아무것도 없는 오두막에서 한 달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있는 규수는 누구든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이야기가 늘 그렇듯이 처음에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싶은 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먹는 데까지 먹고 버티다가, 또 어떤 사람은 조금씩 아껴 먹으며 버티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이웃집과의 협력과 거래를 통해 어떻게 해보려다가, 마침내 포기하고는 모두 ‘이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주인공이 출연하, 먼 길을 오느라 허름하고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차려진 상을 받아 우선 배부르게 먹고, 한숨 늘어지게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행랑어멈을 불러, “혹, 동네에 바느질거리가 있으면 얻어오라”고 일렀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 그것으로 생업을 이어간다면 한 달 아니라 십 년인들 못 살겠습니까? 3일 만에 합격하여 부잣집 며느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가(禪家)에도 전해오는 시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조 혜능의 증손자뻘 되는 백장 스님에게 어느 날 위산의 주지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백장은 불단에 쓰는 정병을 앞에 놓고 “정병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무엇이라고 하겠는가?”라고 물으니, 제1좌(숙청 수제자)는 “말뚝이라고도 부르지 않겠습니다”고 답했고, 영우라는 제자는 발로 정병을 걷어잡니다. 이에 백장은 위산의 주인으로 영우를 인정합니다. 오조 홍인이 법을 이을 후계를 뽑을 때, 당

시 모든 사람의 기대와 인정을 받고 있던 수제자 신수 대신, 아직 머리도 깎지 않은 노행자를 인정한 것과 판박이라고 할 수 있으니 과연 법을 제대로 이어왔다고 하겠습니까.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단지 호의호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할 수 없는 일만 하겠다고 덤비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성공이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든 결과에 마음 두기보다는 실행 과정에 힘쓰는 사람이 더 성실하고 창의적일 테니 성공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눈 밝은 이는 단번에 그 됃됨이를 알아보는 법이니 지혜와 지혜가 서로 만나고 이어져 대대로 흥하는 집안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은 길흉을 말하면 서도 벗어나는 법은 잘 모르는 듯하고, 사주를 믿는 사람도 정해진 운명의 힘을 더 강하게 보며, 신을 따르는 사람 역시 신의 뜻을 믿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현재의 자신을 이룬 것도 자기이고, 앞으로의 자신을 만드는 이도 자기라고 말씀하시며, 운명을 따르는 것도 벗어나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먼저 뜻을 일으키면 말로 표현하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 실행합니다. 성공하면 반복, 확장하고 실패하면 수정·보완합니다. 반복된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굳어진 습관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뜻과 말과 몸으로 만들어 온

총체적 결과이니, 내가 나를 만들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과 행동, 말, 뜻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6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뜻과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을 정계, 멈추었는지 아닌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려, 새로운 뜻과 말과 행동을 연습하는 것을 정진,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깨닫는 것을 지혜, 주변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음을 안인, 실천이 막히지 않도록 자신을 너그럽게 달래는 일을 단시로 나름 껴맞춰 봅니다.

사람은 육도 중생 중 가장 성불의 가능성이 높은 존재라고 합니다. 천상의 존재는 욕심이 없이 상상으로 사는 존재이니 막힘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이유가 없을 테요, 축생은 지혜가 부족하고 본능의 힘이 너무 강하여 그것을 이겨내기 어려우며, 지옥과 아귀는 고통을 벗어나는 외에는 생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만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욕심의 고통과 한계를 자각할 수 있으며,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잘못을 그치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삼세의 업이 나로 인해 생겼으니 나로 인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삼밀관행으로 삼밀가지를 입어 즉신성불한다는 것이 총지의 뜻이니, 총지는 부처님 가르침의 새로운 버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시처처로 실행하여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이상주 교도 (자유기고가)

남해 정사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넷째 날, 새벽부터 서둘러 부처님께서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설하셨던 염화시중(拈花示衆)의 장소 영축산과 최초의 불교사원인 죽림정사, 그리고 부처님 열반 후 500명의 제자가 모여 제1차 결집을 한 장소인 칠엽굴이 있는 마가다국의 수도 라즈기르(왕사성)로 향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교화하셨고, 바라나시에서 부호의 아들 야사와 그의 동료 54명을 제도하셨다. 부처님께서는 60명의 제자에게 “중생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두 사람이 아닌 혼자서 가라” 하시며 제자들을 전도의 길에 나서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도 인근 우루벨라촌으로 전도의 길을 떠나 불을 숭배하던 가섭 삼행제를 교화하셨다. 그 결과 우루벨라가섭, 나제가섭, 가아가섭 3형제의 제자 각 500명과 300명, 200명이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또 사리불과 목건련,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동료 250명을 교화하여 불교 교단의 초석을 만드셨다. 그리고 1250명의 제자와 함께 당시 가장 강대했던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을 교화하셨으며, 최초의 불교사원인 죽림정사를 세우셨다. 죽림정사는 초기 불교 교화의 중심지였다.

영축산은 높지 않지만 둘로 이루어진 산이다. 정상에 있는 바위가 독수리를 닮았다 하여 ‘신령한 독수리산’으로 불린다. 산 정상에는 ‘여래향실(如來香室)’ 법단이 있다. 여래향실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향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영축산 입구에는 걸인과 호객꾼이 많았으며, 특히 염주를 파는 사람이 많았다. 영축산 정상으로 가는 길

인도성지순례기

⑤교화의 땅 라즈기르(왕사성)



사진=남해 정사, 죽림정사 가란타 연못

에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 존자와 사리불 존자가 수행했던 동굴에 들어가 참배하였다.

여래향실 법단에 도착하니 이미 미얀마, 스리랑카, 티베트에서 온 외국인 스님과 순례객들이 예뻐하고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디에서 불공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순간, 그곳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여래향실 가장 앞자리를 마련해줘 여법하게 불공할 수 있었다.

영축산에서 내려와 마가다국 아사세왕이 아버지인 빔비사라왕의 왕위를 찬탈하고 가두었던 감옥터를 불러보고 죽림정사로 향하였다. 부처님은 대나무숲에 건립된 죽림정사에서 5안거를 머무셨다. 죽림정사는 빔비사라왕이 부처님께 기부한 최초의 불교사원이다. 죽림정사 가운데에는 스님들이 묵욕하던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가란타 장사가 소유했던 곳이라 하여 가란타 연못이라고 불린다. 죽림정사 참배를 마치고 걸어서 칠엽굴로 향하였다.

칠엽굴은 산 정상 부근에 있어서 한참 걸어 올라야 했다. 더운 날씨에 위의를 갖추고 산길을 오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칠엽굴로 올라가는 초입에는 온천이 있어 많은 인도인으로 북적였다. 온천에는 여러 개의 목욕탕

이 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목욕탕을 지나니 칠엽굴로 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인도인 가이드가 말하길, 본인이 인도 성지순례를 약 1000번 정도 안내했는데 칠엽굴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순례객 대부분은 죽림정사를 참배한 후 산 밑에서 칠엽굴이 있는 곳만 바라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칠엽굴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에게 돈을 달라며 따라오던 여러 명의 아이가 있었다. 가이드가 안 된다고 하여 돈을 주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칠엽굴까지 따라왔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여 인도로 성지순례 올 때 가지고 온 간식을 나누어 아이들에게 주었다.

칠엽굴에 도착하니 순례객들이 칠엽굴까지 오지 않고 산 밑에서 바라만 보고 가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칠엽굴은 작고 협소한 데다 어둡기까지 하여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다. 이런 곳에 500명이 함께 들어가 1차 결집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직접 와서 보니 칠엽굴이 진짜 이곳이 맞는지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칠엽굴을 참배하고 내려와 점심 공양 후 나란다 대학 터로 향하였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3월 21일 ~ 4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법선	3/24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3/24	20,000
	수증원	3/24	10,000
	밀공정	3/24	10,000
	법지원	3/24	10,000
	일성혜	3/24	10,000
	사홍화	3/24	10,000
	선도원	3/24	10,000
	안주화	3/24	10,000
	진일심	3/24	10,000
	최상관	3/24	10,000
	연등원	3/24	10,000
	자선화	3/24	10,000
	승호제	3/24	10,000
	주신제	3/24	10,000
	총지화	3/24	10,000
단향사	지홍	4/1	10,000
	이상채	4/1	10,000
동해사	김진화	4/9	10,000
밀인사	황갑용	4/9	10,000
	박길선	4/10	10,000
	덕광	4/10	20,000
법성사	남해	3/24	10,000

법성사	신말심	4/14	10,000
법천사	반야심	3/31	10,000
법향사	인선	3/24	10,000
	정계월	3/24	10,000
	박미경	3/25	10,000
벚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4/1	8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3/25	10,000
	박필남	4/15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이태운	3/25	10,000
	박현정	3/25	20,000
	나석원	3/25	50,000
	신찬호	3/25	10,000
선림사	지명	4/9	10,000
세곡 키움센터	김경희	3/25	30,000
	최선해	3/25	10,000
	남경식	3/29	10,000
수계사	자심관	4/16	20,000
시법사	이순영	4/6	20,000
	혜광	4/8	10,000
실보사	이순옥	4/11	10,000
	박성호	4/11	10,000
실지사	정우석	3/26	10,000

실지사	황성녀	4/2	10,000
	정우석	4/18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3/26	80,000
	서영주	3/26	10,000
양지 복지회관	정동숙	3/27	80,000
양지 어린이집	반야화	4/11	20,000
운천사	하재희	3/25	80,000
일원어린이집	연명구	3/27	20,000
	도우	4/7	10,000
자석사	지현	4/7	10,000
	김선희	3/26	8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안한수	4/7	10,000
	탁상달	4/13	10,000
정각사	노점호	4/14	10,000
	법우	4/18	10,000
지인사	인지심	4/18	10,000
	유지호	4/18	10,000
	유선호	4/18	10,000
총지사	록경	3/25	20,000

총지사	무명씨	3/27	50,000
	석나윤	3/28	10,000
	유은혁	4/5	10,000
	정연경	4/5	10,000
	김정환	4/10	10,000
	백귀임	4/10	10,000
	최영아	4/10	10,000
	신현태	4/13	10,000
통리원	장정숙	4/14	10,000
	최지아	4/14	10,000
	박근진	3/27	10,000
	조성기	3/26	30,000
해정사	최영례	3/27	10,000
	강동화	3/26	10,000
화음사	송영근	4/1	10,000
	송하나	4/1	10,000
	송호영	4/1	10,000
	홍춘자	4/1	10,000
	박대영	4/1	10,000
	박대성	4/1	10,000
	무명씨	4/2	10,000
	곽방은	4/10	80,000

산불 피해 문화유산·이재민 돕기에 성금

조계종·불교TV·불교방송에 각 1천만 원 전달



종단이 산불 피해를 입은 불교문화유산 복원과 이재민 돕기에 성금을 희사했다. 4월 월초 불교 기간 동안 교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성금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 힘을 보태 산불피해 돕기 기금으로 5천만 원을 종단차원에서 마련했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4월 24일

오전 10시 40분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공익법인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총무원장)에 의성 고운사 등 화마로 소실된 불교문화유산의 복구 성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서실장 일감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

장 탄웅 스님 등이 배석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의 성금 전달에 감사사를 전했다.

이날 통리원에서는 오후 2시 불교TV, 2시 30분 BBS불교방송에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록경정사는 “종단 대중에 교화를 위한 보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

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고 뜻을 모았다”며 “산불로 고통 받는 이재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총지종 교도들의 마음을 담아 기부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종단은 피해가 가장 큰 경북지역의 환동해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이재민 돕기 성금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당 정사 새 교육원장에 임명

4월 4일, 종령 예하 사령장 수여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에 원당 정사가 선임됐다. 지난 4월 4일 종령 지성 예하는 통리원 종령실에서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비롯한 제21대 통리원 집행부가 배석한 가운데 원당 정사를 교육원장으로 임명하고 사령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종령 예하는 “향후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교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와 함께 중앙교육원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원당 정사가 잠시 주춤했던 중앙교육원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부대중의 불교적 소양을 높이고 신심을 높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원으로 재정립해 달라.”고 격려했다.

원당 정사는 법장원 연구원 겸 중앙교육원 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제9대 중앙종의원과 제17대 교정부장, 제18대 재무부장, 제19대 총무부장을 지냈다. 본산 총지사 등 주요 사원의 주교를 맡아 교화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며, 종단 정책과 사정에 두루 밝아 종단의 비전에 맞춰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스승 재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원장에 적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①㉠			㉡		㉢		②㉣		㉤
		③				⑥			
④	㉥		⑤	㉦				㉧	
⑥						⑦	㉨		
			㉩		㉪				
㉫		⑧					⑨		㉬
			⑩						
㉭						⑫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쇠

- 음력 4월 9일로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맑은 하늘이나 바닷물처럼 밝고 선명한 푸른색
-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풀
- 땅을 파고 그 위에 짚이나 풀 따위를 얹어 지붕을 씌운 작은 집, 00집
- 살갓에 벌레 따위가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
- 국보 제21호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 삼층석탑으로 무영탑이라고도 불린다.
- 산에 올라가 산삼 캐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남의 권리나 인격 등을 침해하여 짓밟음
- 씨름을 하는 장소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
- 매년 5월 8일 아버지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제정된 날
- 잠시 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다녀오는 일

세로 열쇠

-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떳떳하지 못한 마음
- 사막 가운데에 샘이 솟아올라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곳
- 잠을 자지 않고 꼬박 새우는 밤
- 잘못이 있는 사람을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쫓아내어 신분을 박탈함
- 빛깔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빛깔들과 어울리면서 드러나는 아름다움
- 한번 굳게 고집하면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
- 진전이 없거나 막혀 있는 상태를 푸는 실마리나 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 낱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신 분
- 마음을 쓰는 씬씀이나 태도
-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
- 주인과 손의 처지가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 선후, 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뀔을 이르는 사자성어
- 한국 드라마 인기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 됨. 다리가 10개인 연체동물
- 아주 흡사하게 닮은 꼴이나 사람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민대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 원 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통 리 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 련 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 성 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 인 사	03112	서울특별시 중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 천 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 릉 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 법 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 지 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 심 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 인 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 지 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 보 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 황 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 정 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 국 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복길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 원 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 천 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본산동)	(053)425-7910
건 화 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 광 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 음 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 림 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 계 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 인 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 천 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 석 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 음 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 향 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 화 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 행 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 성 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 밀 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로54번길 47 (영선동1가)	(051)416-9835
성 화 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 보 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윤 천 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 상 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 석 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 각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 음 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 해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 령 지성 대종사

통 리 원 장 록경 정사 종 의 회 의 장 인선 정사 사 감 원 장 법일 정사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덕광	관성사 주교 법선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도관	만보사 주교 승원
재무부장 법선	밀인사 주교 덕광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인덕심	법황사 주교 인선
종무원 일동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일진	중원사 주교 정정심
중앙종의회	벽룡사 주교 묘심해	밀행사 주교 금강륜	단음사 주교 일진	혜정사 주교 진일심
사감원	시법사 주교 해광	법성사 주교 남혜	선립사 주교 지명	흥국사 주교 인선
원의원	실지사 주교 서강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자심관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지인사 주교 범우	성화사 주교 서령	수인사 주교 법상	
	총지사 주교 록경	실보사 주교 수현	승천사 주교 지선행	
		운천사 주교 우인	제석사 주교 원만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법장원		자석사 주교 도우		
중앙교육원		정각사 주교 법일		
밀교연구소		화음사 주교 행원심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동해사		